

# 다들 물어봐 희망을

2012. 4호

[www.womenfund.or.kr](http://www.womenfund.or.kr)



특집 칼럼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나눔과공감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사업 <날자>  
당신을 만나게 되어 “깜언 니에우 아!”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 딸들에게 희망을

2012. 4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http://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http://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http://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http://happylog.naver.com/womenfund.do)



## COVER STORY

일상의 공간들을 낙원으로 그려내는 작가 박정민. 일상의 작은 행복과 사랑, 가족애, 풍경을 아름답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담아낸다. 작가 스스로의 내면과 심리적 이상향의 세계를 드러내는 포괄적 의미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7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2011년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이충섬창작스튜디오에 머물며 작업했다.

## Contents

- 03 **사립문 딸들에게 희망을**  
조형 /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특집

- 04 **칼럼**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윤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06 무관심과 침묵에 가려진 가정폭력, 이제는 STOP!  
양산가정폭력상담소 <STOP, 가정폭력>
- 장애인 성폭력 문제,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만만클럽 기금사업 <STOP, 여성장애인 성폭력>

### 나눔과 공감

- 08 당신을 만나게 되어 “깜언 니에우 애!”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사업 <날자>
- 10 “받은 사랑만큼 나누는 맛집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직업·창업 지원사업 <주식회사 국시장터>
- 12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로그인!  
2012 성평등사회조성 기획공모사업 <언니네트워크>
- 13 연인간의 커플링이 더 넓은 사랑의 고리로  
신규CSR <코이누르>
- 14 매달 함께 하는 기부로 희망을 나눕니다  
일터나눔 <19대 국회 여성 초선의원실>
- 15 “딸들에게 희망 주는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신규기부자 <유재경 한국여성재단 기자>

### 소식

- 16 재정보고
- 18 후원현황
- 20 재단소식



**발행 및 편집인** 조형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2년 9월 28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448-17)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인쇄** 해든디앤피(02.2266.6372)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는 가치로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124개 비영리 여성단체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자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공익재단입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소식지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 딸들에게 희망을



아기들이 모여 절대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모를 선택할 권리를 주십시오.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부모의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절대자는 이 요구에 일리가 있다 하며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에게 ‘부모선택권리’를 재가하였습니다. 그 후 한동안 아기가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모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우화입니다.

만약 아기들이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에서 태어날 아기는 몇 명이나 될까요? ‘경제소국’이었던 때 성장한 사람의 눈에 ‘경제대국’ 시대에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이는 이 곳을 택하고 싶어 할까요? 더욱이,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들과 이웃하며 살아야 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곳을? … 과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어두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충격적인 성폭력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때일수록 “딸들에게 희망”이 되는 일에 매진한다는 여성재단의 다짐은 더 굳어집니다.

저희 재단은 2년 전,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응하는 사업을 위해 “만만클럽”이라는 이름의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엄청난고 야만적인 폭력도, 1만, 2만 명이 모이면 대결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재단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부단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딸들에게 희망을” 짓는 맨 처음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소식 한 가지를 곁들입니다. 9월 8일부터 15일까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이 친정과 외가를 방문하는 여섯 번째 <날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일행을 따라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짧은 친정방문의 기쁨과 부모형제를 뒤로 하고 제2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한국이 맞이한 베트남 딸들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을 드리운 여행이었기를 소망해봅니다.

풍성한 자연 맛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에 계절의 맛과 멋, 그리고 평화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성폭력 범죄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걱정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오르 내리는 기사를 보다 보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까지 험악해진 것인지, 그 범죄자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것인지 화가 나고 두렵다.

포털 사이트에 언론 기사가 노출되고 방문자 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기사를 찾고 눈길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한다. 때문에 **언론만으로 성폭력 사건을 보다 보면 성폭력 문제에 대한 편향된 이해를 가지기 쉽다.**

세상의 모든 일이 기사에 실리는 것이 아니듯, 모든 성폭력도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언론의 관심 밖에 있는 성폭력 사건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에 기사화되는 사건에 초점에 맞추어진 관심과 대책이 마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인 양 유통되는 것이 상당히 위험스럽다.

요즘에 성폭력 범죄의 대책으로 많이 거론되는 일명 ‘화학적 거세’도 우려를 낳는 대표적인 사례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최근 16세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화학적 거세는, 현장에서 수 십 년 이상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온 반(反)성폭력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대책이다. 성폭력 범죄자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간단한 문제다. 의료적인 처치로 사회적 범죄는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50% 이상이 친인척이라는 사실은 현장에서의 성폭력 피해 상담에서 변함없이 나타나는 수치다. 성인 피해 상담의 1/3 이상은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입은 피해다. **성폭력이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진 사실이다.** 아동에게 양육자의 위치에 있는 가족, 직장을 다니는 성인들의 삶에서 직장의 선배나 상사와의 관계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어떤 관계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신상을 공개하고, 강제적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에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사실 미지수다. 이런 대책은 성폭력이 불운하게 맞닥뜨린 사이코패스나 소아성애자와 같은 비면식 가해자에게 입는 피해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대책일 뿐, 우리의 일상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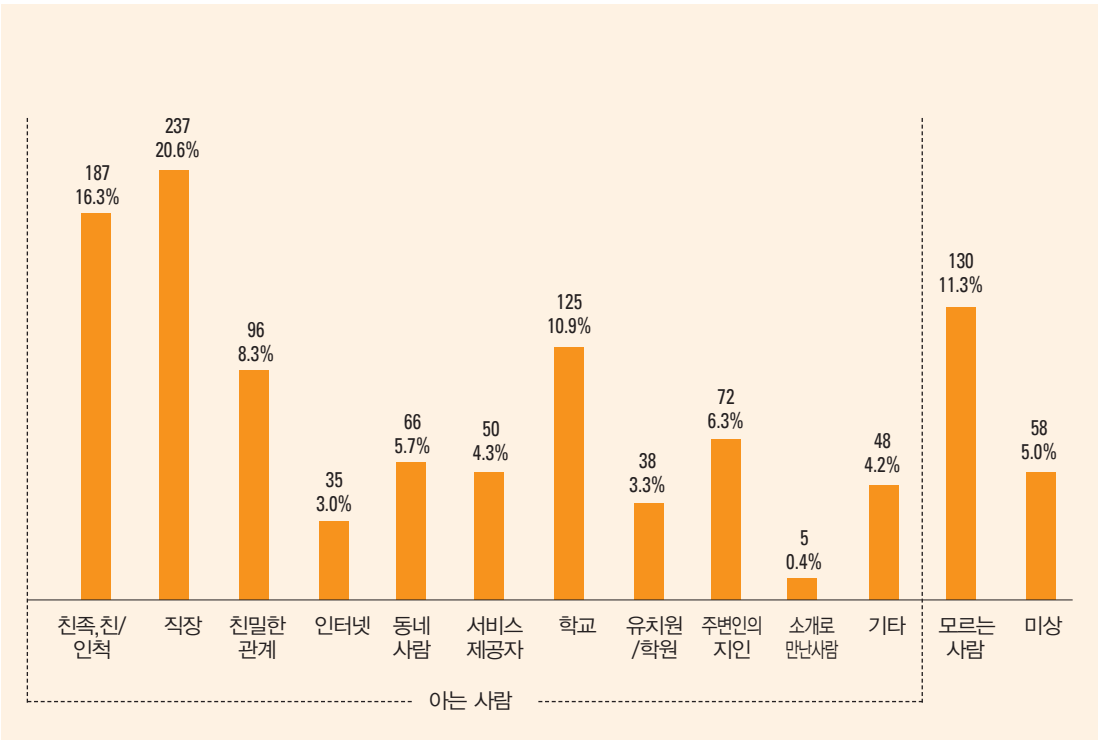


하고 있는, 가족, 직장상사, 이웃사람, 학교 선생님 등에 의해서 발생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와는 거리가 먼 대책이다.

사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자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함께 성장한 이들이다.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물리적·언어적·정서적 폭력은 사이코패스나 소아성애자가 하는 예외적인 행동이 아니다. 어리니까, 여자니까, 장애인이니까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위험하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타이르는 사회라면 이미 차별과 폭력은 도처에 있다는 얘기다.

반성폭력 운동 현장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차별에 기인한 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성찰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었다. 어른-아이, 남편-부인, 상사-부하, 선생-학생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힘이 부당한 방법으로 남용되어 억압과 차별을 받지 않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엄벌정책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수많은 가해자들은 차별적인 사회 덕분에 오히려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서로 사귀는 관계라던데, 여자가 싫다는 말을 안했다던데, 술에 취해 한번 실수한 거라던데. 강경대책 뒤에 숨어있는 뿌리깊은 차별, 왜곡된 통념을 극복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만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는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sup>11)</sup>

글 **이윤상** 前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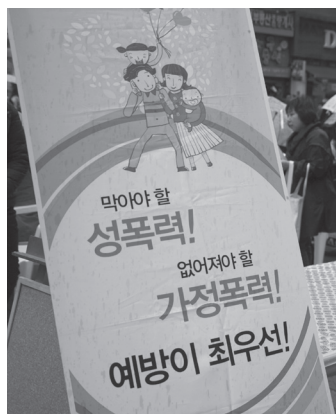


66

한국여성재단은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양산가정폭력상담소의 〈STOP, 가정폭력〉 사업과 만만클럽 기금사업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STOP, 여성장애인성폭력〉 사업을 소개한다.

99

## 무관심과 침묵에 가려진 가정폭력, 이제는 Stop! 양산가정폭력상담소의 〈STOP, 가정폭력〉



최근 강력사건들의 보도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집안문제’로 치부되어 사회가 관여하지 않으려는 사적 영역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남성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는 가정과 이를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이웃의 무관심과 냉담한 반응에서 오는 고통과 고립감을 호소한다.

가정폭력도 사회가 주목해야 할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가정폭력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산가정폭력상담소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STOP, 가정폭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은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10개 학교 8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초·중등학생들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예방법과 신고법에 대한 것을 역할극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인 양산지역 특징을 반영하여 100명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처법 등을 교육하면서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후 양산가정폭력상담소는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직장과 복지시설, 아파트부녀회 등까지 확대 실시하고, 결혼이주 여성 중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 성폭력 문제,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만만클럽 기금사업 <STOP, 여성장애인 성폭력>



지난 해 영화 <도가니>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부각시키며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다. 마치 우리사회를 억누르고 있던 폭력, 특히나 여성장애인에게 자행된 범죄를 낱알이 드러낼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도가니>의 불씨는 사건 후속처리와 법제도 일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그러들었다.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근절을 위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계획한 '2012년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캠페인'을 만만클럽기금으로 지원하였다.

4월 13일 금요일, 대구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행사를 통해 폭력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이야기하는 캠페인이 열렸다. 이 캠페인은 폭력피해자인 여성장애인이 수사기관 및 주변선언으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폭력피해로부터 치유받고 회복하는 사회적 지원이 열악한 상황임을 밝히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호소하였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일상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영화 한편에 의해 수면위로 잠시 떠올랐지만, 이전에 없었던 일이 아니다. 오히려 수면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미디어는 그 때에만 사건을 보도한다. 이제 부터라도 폭력추방 및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W

한국여성재단은 <만만클럽>캠페인을 통해,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안심 사회 만들기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만명이 함께 만드는 세상의 희망, <만만클럽>캠페인은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MBC라디오 '잠깐만', '성경섭이 만난 사람' 등을 통해 여성폭력근절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이제석광고연구소와 함께 지적장애여성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광고물을 제작하였다. 향후에도 폭력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모금은 계속될 예정이다.

## 당신을 만나게 되어 “깜언 니에우 아!”(정말 감사합니다)

###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 <2012 NAL자>

66

지난 9월 8일, 우리는 이웃보다 조금 이른 추석맞이 친정방문을 위해 베트남으로 떠났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친정방문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 <날자>사업을 통해 33가족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이 베트남 친정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99



엄마에게 김치찌개 만들어 주고 싶어요.

떠나기 전에 만난 자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김치, 고추장, 된장, 압력밥솥 등 가져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다. 자신이 배운 맛있는 한국음식을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설마 다 가져가 실까 싶었는데... 짐만 보고도 <날자> 가족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두 한가득 짐을 실어 왔다. 비행기 화물 무게 규정에 맞추느라 전날 밤까지 체중계로 무게를 재가며 짐을 싣다는 이야기에서, 부모

님께 하나라도 더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동생을 만나기 위해 5년을 기다렸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내려 도착한 하노이 공항, 비행기 수하물을 모두 찾고 입국장으로 나서는데, 덩티후에씨가 눈물을 터트렸다. 짐이 없어진 것이다. 가족들이 꽃을 들고 마중까지 나왔는데 생필품 가방부터 선물박스까지 모두 사라져 버렸다. 확인해보니 항공사 직원의 착오로 그녀의 짐을 하노이가 아닌 호치민 비행기에 실어보낸 것이다. 날자 프로젝트로 방문하는 도시는 하노이와 호치민. 이른 아침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발권하고 짐을 부치다보니 항공사 직원이 깜빡 헛갈렸나보다. 다행히 호치민에 도착한 여행사 직원이 직접 짐을 가지고 비행기로 타고 하노이에 오기로 하여 덩티후에씨의 가족들과 함께 공항에서 여러 시간을 기다렸다. 미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는 여행사 직원들과 실무자들에게 그녀의 오빠는 ‘덩티후에를 만나기 위해 5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공항에서 몇 시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며 위로의 미소를 지었다.

## 딸의 결혼과 임신을 액자에 소중한 담아둔 친정부모님들



여성중앙의 취재 차 투항나씨의 집을 방문하였다. 세 명의 오빠들과 시누이들, 그리고 한 명의 여동생이 옷을 차려입고 밝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투항나씨의 아버지는 먼 타국으로 가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착한 사위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즐거워하였다. 멀리 사는 딸이 그리워서일까. 집안 곳곳에 투항나씨의 결혼과 임신, 한국생활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있었다.

##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정말 사랑해

2012년은 한-베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한-베 가족들이 참여하는 기념 오찬행사가 진행되었다. 오찬에는 베트남 주재 하찬호 한국대사, 후원사인 삼성생명의 곽상용 부사장, 베트남여성연합의 웬티 투엿마이 (Nguyen Thi Tuyet Mai) 가족사회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문화원, 하노이대학, 베트남 주요언론사 등 많은贵宾들이 참석하였다.

오찬 중 자신들의 한국생활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지금은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이서현씨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남편의 외조로 통번역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발표 끝에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여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자, 남편 이홍복씨는 얼굴을 붉히며 미소지었다.

##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열심히 살자.

베트남 방문 마지막 날에는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줄넘기와 풍선을 터트리며 신나게 몸을 움직였다. 이어 부부 간 속이야기와 사랑고백을 하는 푸드테라피가 진행되었다. 현재의 모습과 이후의 계획을 음식으로 표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은한 조명과 촛불이 있는 가운데 장미꽃을 든 남편들이 쑥스러움을 버리고 아내들에게 사랑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고백한 한 남편은 아내로부터 진한 입맞춤을 받기도 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날자>를 통해 그리웠던 친정을 방문할 수 있어 무척 기뻐했다고 되풀이하여 말했다. 또한 매해 <날자>를 진행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딛고 결혼이주여성과 남편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생활에서 긴장한 아내의 곁에는 남편이, 반대로 말 안 통하는 베트남에서 남편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뿐이다. <날자>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가족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8일간의 아름답고 따뜻한 여행이었다. W



## “받은 사랑만큼 나누는 맛집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직업·창업 지원사업〉 주식회사 레인보우

66

“모국의 손맛을 살렸어요!”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온 4명의 여성 결혼 이민자가 직접 요리하고 운영하는 마산 창동 ‘주식회사 레인보우’가 다문화가정 여성의 창업 성공사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99



‘주식회사 레인보우’ (이하 ‘레인보우’)는 지난해 5월 한국여성재단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창업지원사업 중 하나다. 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창동 예술인 거리에 문을 연 후 베트남 쌀국수, 필리핀 볶음밥, 태국 야채당면 등 4개국 10여 가지 메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선보이고 있다. 레인보우만의 레시피로 만든 볶음국수와 해물 쌀국수는 매니아 층이 있을 만큼 인기가 많다. 하루 평균 3~40여 명의 손님이 꾸준히 오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쓰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갈등 기저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기관, 단체의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략) 결혼이민자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없앨 수 있는 특성화되고 지역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자 했다.” 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현주 팀장의 사업 후기이다.

창원시는 ‘레인보우’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레인보우’를 정성으로 이끌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았다.



여성재단 :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공동창업의 좋은 사례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명소로 이름을 알려나가고 계신데, 지금 ‘레인보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레인보우** » 원래 개인사업자 형식의 사업이었는데 올해 4월부터 상법상 회사가 되었어요. 주식회사가 되고 나서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7명 중 5명의 인원에 대한 급여를 보장받고 있지요. 현재 국적은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1년 정도 운영을 하니깐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 다문화 식구들이나 내국인 손님들이나 편안하게 다녀들 가세요. 창동 예술촌 거리로 가게 하나하나가 특색 있게 꾸며지고 아무도 다니지 않아 허하던 골목에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거리가 활성화고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재단 : 모든 일이 그렇듯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텐데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요?

**레인보우** » 점포세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을 찾다가 이 자리를 얻었는데, 본래 옷가게를 하다 오랫동안 비어놓은 곳이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수도, 가스, 전기, 주방, 하수처리 등등 시설 설비들을 처음부터 다 새로 해야 했으니까요.

오픈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궁금해서 꽤 오셨어요. 하지만 거리 자체가 워낙 유동인구가 없었고 주차시설이나 주변 환경들이 잘 정비되지 못하는데다 예술촌 만드느라 가게 앞 거리를 계속 파고 공사하니까 어떤 날은 매출이 6,000원인 절망적인 날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아무도 화내거나 힘들어 하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더 다독이고 보듬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서로 많이 의지하고 있고 자매처럼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매일 매일 즐겁습니다.

여성재단 :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을 말씀해주세요

**레인보우** » 우선은 매출이 더 많아져서 지원 없이 우리가 자립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나면 2호점을 내고 싶어요. 젊은 엄마들이 많은 호계쪽, 창원 중앙동 쪽으로 진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나누고 싶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 문을 열었지요. 우리 가게가 좀 더 나아지면, 받는 사람들에서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이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 가족 모두가 지금처럼 계속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레인보우’ 외에도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하는 이주여성 창업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 다문화가정 직업·창업지원사업 중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원지부의 통번역사업단 ‘무지개소리’가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만든 태국 여행레스토랑 ‘쿤’도 성업 중이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주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W

##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로그인!

〈2012 성평등사회조성 기획공모사업〉

언니네트워크 “여성주의 라이브러리에 접속하다 :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비전찾기 프로젝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사회 전반에 성평등의식과 평등문화를 확산해나갈 목적으로 한국여성재단이 매년 자유공모방식으로 여성공익사업들을 선정하여 추진해왔는데, 지난해부터는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기획공모사업을 부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기반의 새로운 조

직운동, 활동가 재생산 모색, 그 외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환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여성 문화운동의 활력을 만드는 기회로

언니네트워크의 “여성주의 라이브러리에 접속하다 :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비전찾기 프로젝트”는 이번 2012년 한국여성재단 기획공모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선정된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언니,네가 궁금해”, “언니,네가 필요해”, “언니,너를 보여줘”라는 주제로 총 3차에 걸쳐 개최되는 워크숍은 언니네트워크 전·현직 활동가와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활동가와 회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문화운동에 대한 여성운동 관점의 의미 및 정치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회원의 참여와 운영을 위한 내부 워크숍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연속강좌 ‘여성주의 라이브러리’는 여성주의 활동에 참여하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프로그램으로, “여성주의 문화운동”을 키워드로 하는 5차례의 강좌 이후,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해보는 상상기획 캠프로 마무리된다.

다양한 위치에서 여성주의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여성주의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W

언니네트워크는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www.unninet.net](http://www.unninet.net))를 기반으로 하여 2004년 겨울에 출발한 여성단체이다. 언니네 채널 넷 운영, 페미니즘 캠프, 여성주의와 비혼에 관한 대중도서 출간 활동, 아시아 여성연대 사업, 성소수자 인권운동, 〈비혼PT나이트〉와 같이 비혼 여성들을 위한 담론 생산과 연대활동 등 여성주의 네트워킹을 통해 여성주의적 가치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 연인간의 커플링이 더 넓은 사랑의 고리로

주얼리 디자인 브랜드 <코이누르>, 8월 8일 커플링데이 수익금 기부



2012년 8월 8일 청담동 코이누르 갤러리홀에서 2회 커플링 파티 ‘I’m So Happy’가 열렸다. 코이누르는 자연친화적 디자인을 모토로 자체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는 고급 주얼리 브랜드이다. 이번 커플링 파티는 단순히 코이누르의 주얼리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혼모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 자신의 삶을 당당히 선택한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커플링데이 파티

“젊은 남녀 간의 커플링을 뛰어넘어, 엄마와 딸, 친구와 친구, 자매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자는 취지입니다.” 코이누르 송진희 대표가 밝힌 파티 기획 의도이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자신과 다른 상황에 있다고 함부로 동정하는 것은 편견과 다르지 않아요. 미혼모와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당당히 선택한, 응원 받아 마땅한 이들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파티 제목을 ‘I’m So Happy’라 지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대표하여 이주여성연합회 왕지연 회장은, 행복한 다문화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혼모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용감한 컵케이크’가 함께 하여, 현장에서 컵케이크를 판매하였고, 판매수익의 절반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비영리 공부방 간식으로 배달되었다.

### 8일간 커플링 판매 수익금의 8%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금으로

코이누르 8월 8일 커플링데이 당일 매출액 8%와 16일까지 커플링을 판매한 수익금의 8%를 더한 기금을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하였다. 연인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커플링이 더 넓은 사회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어진 나눔의 고리가 계속되길 기대해본다. [W](#)

## “매달 함께 하는 기부로 희망을 나눕니다”

〈일터나눔〉을 시작한 19대 국회 여성 초선의원실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나눔’은 회사, 단체가 매달 월급의 일부를 공동으로 기부하여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나눔이다. 일터나눔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금으로 사용된다. 국회의원과 의원실 직원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국회 일터나눔은 2004년 16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66개의 의원실이 참여해왔다.

새로 문을 연 19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은 47명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16%를 차지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가 참여하는 국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머나멀다. 여성의 진입장벽이 높은 정치 세계에서 국민의 절반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의원들 중에서,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나눔에 동참한 4명의 여성 초선의원들을 소개한다.

2012년 첫번째 일터나눔(86호)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20년이 넘는 오랜 여성운동 경험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윤인순 의원은 9급 비서 이외에 여성 보좌진을 거의 기용하지 않는 국회 풍토 속에서, 4·5급 여성 보좌진을 채용하여 여성운동가 출신으로서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 뒤를 이어 87호 일터나눔을 신청한 곳은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실**이다. 전정희 의원은 (사)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을 지냈으며 현재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이다. 익산지역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시사토론을 진행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최근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첫번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88호 일터나눔을 신청한 의원실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이다. 영화 ‘완득이’의 배우로 알려진 이자스민 의원은, 이주여성들의 봉사단체이자 문화네트워크인 물방울 나눔회 사무총장을 맡아 다문화화정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다문화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끌여가는 이자스민 의원실에는 몽골 출신 귀화한국인이 보좌진으로 있어 눈길을 끌었다.

89호 일터나눔 의원실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이다. 진선미 의원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호주제 폐지 관련 헌재 위헌 소송을 맡아 2008년까지 주력했다. 이 밖에 성소수자·병역거부자·철거민 등 소수자의 편에 서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일해왔다. 최근 SJM 노사분쟁과 관련된 경비용역 업체 컨택터스 일로 현장을 누비는 등 활발하고 성실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딸들을 위한 나눔문화에 앞장서는 네 명의 여성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W



## “딸들에게 희망 주는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신규 기부자 유재경님



들뜬 마음으로 한국여성재단 3기 기자단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회의로 기자단 활동에 충실하지 못함을 미안해하고 있던 찰나, 그 마음을 어찌

알았는지 기자단 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왔다. 신규기부자로 본인 이야기를 기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렇게 되었으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려 한다.

나는 여중, 여고, 여대를 졸업하고 딸 둘을 키우며 15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해 연애, 결혼, 임신과 출산의 고개를 넘어 현재는 지난한 육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작년에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안식년 휴가를 갖기도 했다. 그러다 올 봄부터 직장인의 경력개발과 이직에 대해 조언하는 커리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사 내외의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다. 사내 봉사단에서 장애아동 돌봄 활동을 하고 전립선전환 무료지원활동도 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했지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다 보면 오히려 풍요로워지는 ‘나눔의 역

설’을 체험한 후로는 그 뿌듯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기부와 봉사를 통해 누구나 마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 나는 많은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항상 여성과 아이들에게 마음이 갔다. 내가 여성이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기자단 오리엔테이션 때 한국여성재단 기부를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기자단 활동을 할 때 기부자가 아닌데 어찌 기부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기부를 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기에 선뜻 정기기부를 약속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 사회가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로 **어서 빨리 변모하길 바란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딸들이 행복한 삶을 일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딸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은 리더십의 대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정의와 같다. “성공이란 당신이 가장 ‘즐기는 일’을, 당신이 ‘감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그런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하는 일이라 확신한다. 한국여성재단과 나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손을 맞잡고 목표 지점까지 성큼성큼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참 좋다!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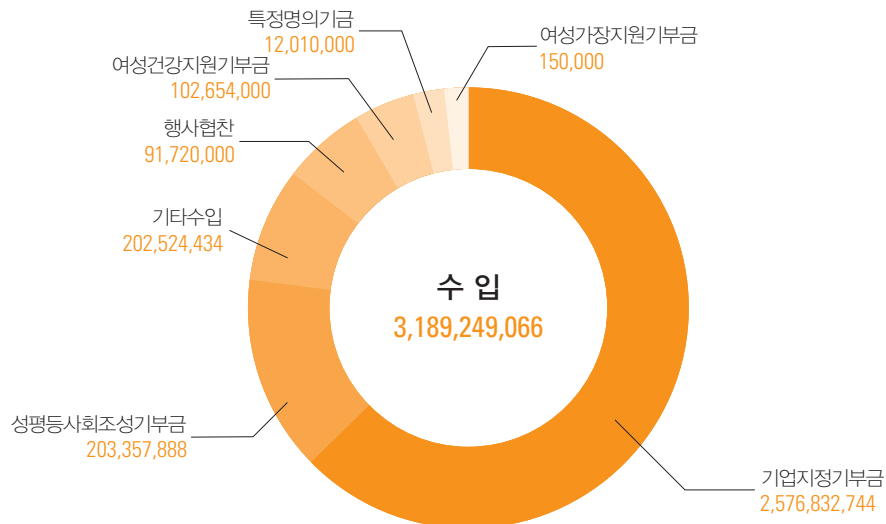
글 유재경 한국여성재단 W.C 기자단

## 수입

기간 : 2012.1.1 ~ 2012.8.31

(단위 : 원)

항 목	내 용	금 액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물품기부 등	2,576,832,744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만만클럽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콩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소계 203,357,888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02,654,000
여성가장지원기부금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금	150,000
특정명의기금	고사리손, 애경산업 기금 등	12,010,000
행사협찬	개인, 기업의 한국여성재단 행사협찬	91,72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	202,524,434
총수입		3,189,249,066



#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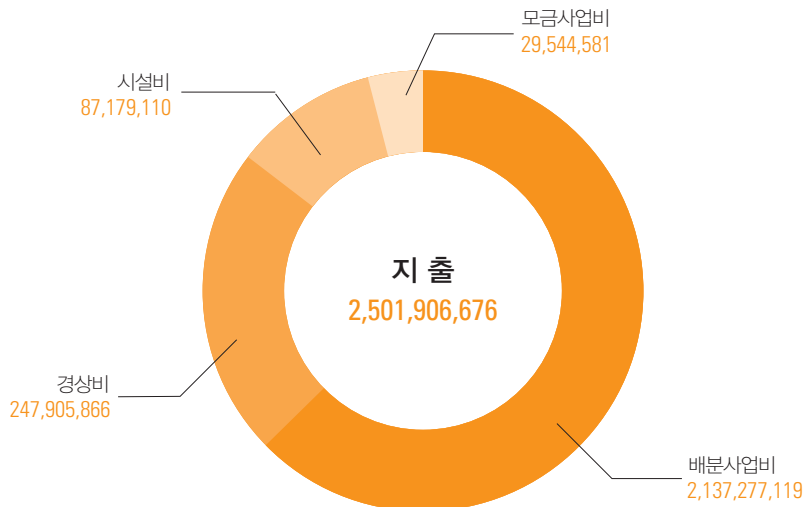
기간 : 2012.1.1 ~ 2012.8.31

(단위 : 원)

항 목	내 용	금 액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경비	29,544,581
배분사업비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고사리손기금 2.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엄마에게 희망을-건강지원사업 (CJ) • 날자 프로젝트-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다문화여성 행복스타트-사회적응,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정사업본부) • 다문화가정 자녀 1:1 희망 멘토링 (LGI노텍) • 다문화가정 아동 리더십개발 멘토링 (외환나눔재단) • BB희망날개-다문화가정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미혼모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주)NHN 농산촌지역 아동도서관 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짧은여행 · 긴호흡, 도움닫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 여성NGO장학사업 (유한킴벌리, 상지대, 성공회대) • 시설개보수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기업지정사업 등 4. 사회적 돌봄사업 •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육서비스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소계 2,137,277,119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비 등	247,905,866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87,179,110

총지출

2,501,906,676



$$\frac{18}{19}$$

보내주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유카	아이파스코브러쉬	주식회사	안경자	안기선	안기현	안나경	자세에	장경숙	장경월	장경혜	장금국	장기정	장길용	장나눔	장덕현
안덕남	안영소	안미남	안미희	안미희	안민석	안봉소	안상진	안선주	장동애	장영련	장영숙	장미정	장미정	장봉화	장소연
안성희	안재준	안소연	안미경	안소하	안승용	안승옥	안경연	안미슬	장순자	장순화	장승현	장성국	장영미	장영연	장영혜
안재준	안재철	안중희	안준호	안중길	안지현	안진희	안필나	안해경	장옥형	장은선	장인선	장재철	장정자	장정희	장철경
안원희	장영숙	장영석	장금소	장도숙	장미진	장미현	장서량	장세경	장화희	장영희	장학재	장영경	장혜숙	장혜자	장호소
안승주	양소익	양소진	양은석	양기소	양일소	양미현	양태경	양현자	장화원	전구수	전남미	전미경	전수봉	전순희	전영숙
양원정	양해선	양해선	양후진	양화영	양희은	양현경	양재옥	양태익	전영미	전영애	전영희	전옥소	전왕영	전옥수	전현수
양태호	에스케이	커뮤니케이션	메디소	여선숙	여성문	여은하	여은하	여은하	전정희	전종선	전진숙	전진영	전태자	전현정	전혜경
여호영	연미자	연희희	염미희	염민소	예덕민	예은소	오경숙	오금식	정경수	정경옥	정경은	정구홍	정근하	정길석	정나일선
오동성	오영옥	오영희	오수원	오수정	오숙환	오유은	오유은	오유은	정나주	정다정	정덕희	정영숙	정민희	정미소	정미진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재숙	오정소	오정호	오지섭	오준호	오형원	정미태	정미화	정민수	정민자	정삼아	정상민	정성은
오희주	오지영	오현수	왕국숙	왕국소	우대성	우미숙	우소숙	우혜경	정순아	정선영	정성남	정성태	정성화	정성영	정수연
울산여성인재회	원경숙	원국금	원국경	원국영	원혜숙	원혜소	원혜소	원경미	정성자	정순주	정승희	정선희	정현영	정영영	정영애
유경화	유경희	유나희	유영숙	유영중	유선기	유선희	유숙자	유순복	정영지	정영희	정영영	정옥민	정용주	정원영	정원희
유상남	유상희	유영미	유영실	유옥목	유윤민	유유자	유유주	유유중	정유진	정윤주	정윤주	정윤현	정은선	정은수	정은하
유일영	유재경	유정미	유정진	유정자	유정자	유희영	유희숙	유지희	정진선	정진하	정진호	정재실	정재훈	정은소	정정옥
유원정	유화숙	유화영	유화정	유희정	육성희	육은정	윤경숙	윤계원	정지은	정지은	정진숙	정찬숙	정창우	정현	정현미
윤기분	윤남희	윤말미	윤미리	윤미재	윤미아	윤미연	윤선정	윤은규	정현태	정현희	정혜경	정혜민	정혜진	정희경	정희철
윤순남	윤영경	윤영미	윤영배	윤영복	윤국경	윤국영	윤은정	윤은영	제은아	제이콘텐츠	비현동점	조갑원	조경자	조경희	조광희
윤은정	윤은화	윤은희	윤재환	윤정보	윤정보	윤정자	윤정희	윤정희	조관중	조국원	조기환	조미경	조미경	조미래	조미영
윤정희	윤혜숙	윤혜영	이기윤	이가춘	이가희	이강산	이건우	이건희	조범선	조보희	조상래	조상진	조성희	조성만	조성민
이경미	이광선	이광소	이경진	이경애	이경자	이경자	이경희	이경희	조성자	조영환	조성희	조세화	조소희	조오민	조연숙
이계경	이관호	이광미	이광우	이광호	이려현	이려현	이려원	이려우	조미란	조영소	조영용	조영진	조옥라	조옥화	조은숙
이규선	이규식	이근재	이근현	이근희	이금녀	이금복	이금소	이금재	조운세	조윤희	조정란	조정숙	조정연	조정현	조정훈
이기선	이기희	이기연	이기희	이남희	이덕남	이덕민	이덕영	이덕중	조후진	조혜려	조진숙	조준미	조판용	조희숙	조현덕
이덕희	이도형	이동훈	이동희	이리자	이리희	이리현	이리영	이리영	조희경	조희래	조혜수	조준미	조판용	조희숙	조현덕
이명자	이명화	이명희	이문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숙	주영희	주미영	주석중	주선숙	주애애	주영	주향숙
이미선	이미영	이미영	이미영	이미영	이미영	이미자	이미정	이미정	지미용	지일호	진미숙	진소미	진주미		
이미진	이미향	이미향	이민	이민경	이병기	이병도	이보람	이보희	차경선	차성우	차승현	차재명	차주영	차진희	차철용
이복순	이복희	이봉찬	이성미	이성민	이성영	이성숙	이성은	이성익	차재진	차재원	차재진	차병석	차소연	차현영	차희란
이신례	이선미	이선영	이선옥	이선웅	이선이	이선이	이선자	이선필	최경숙	최경숙	최경소	최경애	최경애	최희영	최희경
이선희	이선희	이성구	이성영	이성일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희	최희경	최희숙	최희소	최희래	최희영	최희현	최희미
이소형	이소희	이소희	이소하	이소연	이소연	이소연	이소숙	이소이	최희경	최희희	최희래	최희영	최희현	최희미	최희미
이수인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수훈	이수희	최희미	최희용	최희봉	최보소	최봉철	최봉희	최삼덕
이숙인	이숙향	이숙현	이숙희	이숙덕	이순선	이순소	이순임	이순임	최성철	최성실	최수경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현
이수자	이수현	이수희	이수희	이수희	이수유	이수유	이수은	이수현	최성철	최신아	최창호	최형숙	최형숙	최원석	최국경
이승현	이승희	이승희	이삼옥	이쌍선	이만나	이애란	이양주	이연주	최유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숙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재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수	최진숙	최진미	최진희	최진영	최재선	최재수	최재희
이영숙	이영이	이영소	이영실	이영옥	이영우	이영일	이영자	이영주	최형숙	최형은	최형은	최형진	최형하	최홍수	최홍희
이영주	이영주	이영현	이영혜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옥경	최지원	최진	최진희	최태숙	최태진	최하늘	최해정
이옥의	이옥자	이옥희	이원정	이옥강	이옥선	이옥성	이옥정	이옥찬	최현수	최현주	최현주	최현진	최현진	최현호	최현희
이원태	이원식	이원유	이유경	이유림	이유진	이유경	이유성	이유열	최현숙	최혜정	최호선	최화숙	최화연	최희경	최희화
이윤재옥	이윤주	이윤희	이윤경	이윤수	이윤숙	이윤숙	이윤영	이윤영	주연식						
이운우	이운정	이운주	이운주	이운희	이운희	이운희	이운희	이운수	탁은숙	태유리					
이이녀	이이영	이이환	이익주	이민숙	이민숙	이민숙	이민소	이민우							
이민주	이민주	이민주	이민하	이민숙	이민자	이민자	이민자	이민자							
이재준	이재학	이재한	이점무	이점소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훈	편민자	평해연	표근혜/표일용	표선희			
이정숙	이정숙	이정국	이정원	이정은	이정자	이정자	이정자	이정훈							
이재영	이종남	이종소	이종용	이종은	이종혜	이종환	이종환	이주현	하경남	하귀옥	하두련	하민호	하성태	하수원	하영희
이주홍	이주희	이준영	이준배	이지락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하윤숙	하지운	하정미	하태성	하형자	하한정	하현주
이지훈	이진서	이진석	이진수	이진숙	이진아	이진은	이창하	이철수	한미소	한미옥	한미정	한미희	한민경	한민숙	한민희
이철순	이창자	이창아	이치우	이태용	스테파니	이태원	이태현	이태화	한소미	한소희	한아름	한애자	한현순	한옥련	한은숙
이택호	이파라	이광명	이하린	이한선	이해경	이행숙	이해민	이현숙	한정옥	한정의	한정현	한종익	한지희	한준호	한혜주
이현숙	이현순	이현준	이현지	이현진	이현근	이혜경	이혜경	이혜선	합정소	해소학원	해미린	해남호	해명지	해미영	해선이
이혜숙	이혜소	이혜영	이혜자	이혜희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호선	하소연	하순자	하선하	하유진	하은실	하은실	하은희
이호준	이태미	이홍희	이화숙	이화영	이화린	이화영	이화영	이후영	하호영	하희경	현선리	현순식	호성투어	호희	홍경숙
이홍재	이희석	이희숙	이희숙	이희순	이희원	이희정	이희정	이영	홍금태	홍기태	홍나래	홍미리	홍미선	홍상옥	홍상호
임경숙	임경숙	임경아	임경자	임경자	임기수	임덕희	임덕희	임신희	홍선영	홍성은	홍성혜	홍성희	홍성민	홍성자	홍성진
임신희	임수영	김갑순	임성택	임수경	임숙자	임소연	임소연	임소연	홍애진	홍유희	홍은희	홍은숙	홍정아	홍정민	홍정택
임승임	임연주	임영미	임영숙	임영주	임용태	임민숙	임정구	임정혜	홍현희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구정	황미영	황병덕
임진식	임진철	임준근	임태환	임현숙	임현주	임호근	임홍서	임홍서	황치연	황옥라	황유성	황은주	황은진	황인선	황인자
									황선정	황선자	황선희	황정혜	황지택	황호영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프로젝트 '날(NAL)자'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을 지원하는 '날(NAL)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결혼 이후 한 번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진행하여, 총 35가족 124명이 선정됐다. 올해에는 9월 8일부터 16일(7박9일)동안 친정방문 및 다양한 현지행사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진행되었다. '날(NAL)자'는 단순한 고향방문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관

계를 향상시키고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본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생명 객상용 부사장 및 하찬호 한국대사, 사진작가 조세현 씨와 배우 홍은희씨가 함께하여 행사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지원 외에 올 해는 특히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년간의 날자 프로젝트 성과를 되돌아보고, 사업관계자들의 다양한 제언을 나누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 '다문화가정 행복스타트 프로젝트' 현장방문을 통한 파트너십 제고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와 한국사회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정 행복스타트 프로젝트가 전국 17개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인 8월에 후원처인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이주여성들의 직업훈련, 지역사회활동, 자조모임, 위기상황 대처, 이상 네가지 영역의 지원분야를 골고루 방문하였다. 파트너단체 활동가와 이주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이번 기회를 통해 후원기업과 지원재단, 현장의 파트너단체 3자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다.

## 멘토링 사업 지원 단체, 심층면접 시작



한국여성재단은 멘토링 효과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외환은행나눔재단이 후원하는 멘토링사업 4개 지역의 4개 단체와 LG이노텍이 후원하는 멘토링사업 7개 지역의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사전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중간 심층면접을 하고 있다. 심층면접은 지역별로 그룹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전반기 활동내용을 중점적으로 듣고 후반기 활동계획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사후설문조사를 통해 각 그룹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준 효과에 대해 알아볼 계획이다.

---

## BB희망날개, 제2회 윈크페스티벌 개최 준비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공동주최하는 다문화여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BB희망날개의 최종보고회 '윈크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BB희망날개는 다문화여성들이 문화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마련됐다. 전통춤·난타·뮤지컬·요리 등 다양한 주제의 커뮤니티들이 공연 및 즐길거리들을 준비 중이다. 선정 커뮤니티 10곳의 담당 실무자와 커뮤니티 리더, 자문위원이 페스티벌 준비기획을 함께 한다.

---

## 2012 '짧은 여행, 긴 호흡' 여성단체활동가 캄보디아 비전여행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2012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여성활동가 비전여행'이 9월 2일~8일 5박 7일간 캄보디아에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인 이하 소규모 공익단체의 여성 활동가 15명이 참여하여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앙코르 와트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고, 지역 마을, 여성작업장과 어린이 도서관도 방문하면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였다. 우기 탓에 장대비를 맞으면서도 신나게 웃을 수 있었던 시간. 서로가 든든한 네트워크가 되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찾는 시간을 가졌다.

---

##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육사업 중간평가 간담회



한국여성재단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육사업' 중간 평가 워크숍이 9월 19일~20일 1박2일간 개최되었다.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사회,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이 사업은 광주, 경북 봉화군, 부산, 전북 완주군, 충북 제천 이상 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인원 기준 294가구, 428명의 아동에게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보육서비스와 돌봄센터 거점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2012 우림필유 여성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증서 전달식



지난 8월 31일 '2012 우림필유 여성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었다. 한국여성재단이 여성공익활동가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해온 이 사업은 지난 10년간 후원기업인 (주)우림건설 임직원들의 급여나눔을 통해 지속되어왔다. 올해는 시민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대학 혹은 대학원생 중 총 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장학생들에게는 장학증서와 함께 각 1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 제2기 상자-유한킴벌리 NPO여성리더십과정 개강식



오는 9월 19일 상지대학교에서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제2기 NPO(비영리단체)여성리더십과정 개강식이 열렸다.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의 리더십 육성을 위한 이번 과정에 총 30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으며, 개강식에 이어 '지구화 시대의 NPO리더십'을 주제로 한국여성재단 조형 이사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 (주)대상 청정원, 추석맞이 식료품 전달



대상 주식회사 청정원은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올해 상반기에 이어 소외계층 여성과 자녀를 위한 '희망의 술가락' 하반기지원에 나섰다. 이 사업은 전국 여성 쉼터와 모자보호시설, 아동그룹홈, 보육시설 등의 여성과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 경제적 보탬이 되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물품은 추석에 맞춰 생활시설에 전달했다.

## 한국여성재단

###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는 기치로 각계 각층의 리더들과 124개 여성 단체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자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 한국여성재단의 최근 소식, 정보 등을 담은 소식지 및 뉴스레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여성재단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하는 방법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좌번호

국민은행 079-01-0405-971

농협중앙회 369-17-005283

예금주 : (재)한국여성재단



## 만만클럽 캠페인

### 성폭력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 주세요!

한국여성재단은 폭력없는 세상을 위해

'만명이 만드는 세상의 희망-만만클럽' 모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성폭력예방을 위한 활동기금으로 적립되어,

성폭력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콩 기부가 딸들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해피빈 콩기부





아이가 아이에게 또래 지원캠페인

# 고사리손기금

19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시아의 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또래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기부 캠페인입니다. '고사리손기금'은 아시아 어린이들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 여 방 법

홈페이지, 전화로 기부신청을 합니다.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http://www.womenfund.or.kr)

전 화

02-336-6364